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마태복음 3:1~17)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십자가 생활화는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학자일지라도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교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경 말씀이 나의 사건으로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십자가 생활화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곧 세례의 생활화라고도 말할 수 있

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물세례와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세 가지 세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는 십자가 생활화를 강조한 사도 바울의 핵심적 사상을 자신의 언어로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Daily baptism).”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 생활화는 바로 날마다 세례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반복하여 고백할 때에 세례는 반드시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의 삼중세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는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쭉정이로 판가름 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날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거듭되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이라면 날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의 삼중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삼중세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알곡이 아닌 쭉정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이는 곧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에오(μετανοέω)로써 다르다는 뜻의 메타(μετά)와 생각하다는 뜻의 노에오(νοέω)의 합성어입니다. 즉 ‘다르게 생각하다, 생각을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염두에 두며 삼중세례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이 쭉정이이며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꼭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건전하게 살았더라도 마음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쭉정이 된 신분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일 뿐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나타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에세네파를 포함하여 유대인 사회에서 유력한 3대 종파 중의 하나였고 특별히 지도자층을 양분하던 세력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사두개파가 더 적었으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산헤드린공회원의 대부분이 속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지도자층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적인 행태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쏟아낸 욕이 아닙니다. 이들이 처해있던 명백한 영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생각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쳐야 될 생각이 바로 독사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받은 저주는 바로 뱀이 땅을 기어 다니듯이 마음을 땅에 붙이고 흙을 먹듯이 이 땅에 것을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독사의 자식으로 타락하게 된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게 지음 받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으로 채우도록 지음 받았으나 타락한 인류는 뱀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돈 건강 외모 권력 이성 자녀 등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예배당 건축이나 부흥 혹은 풍부한 예산이 땅에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땅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비난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만족을 주리라 생각하여 돈을 벌기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것은 더 많은 저주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중한 외모로 우월감을 느낀다면 이 또한 더욱 저주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회개를 위한 세례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로 물세례는 독사의 자식 됨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위는 곧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배고픈 마음을 땅에서 채우려할 때에 땅을 생각하게 되고 하늘에서 채우고자 할 때에 하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에 물세례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독사의 자식 된 신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땅의 것으로 마음이 배부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죄악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회개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이 회개의 방식으로 물에 빠져 죽듯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죽이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세상에 대해 죽는 것과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땅에서 살지만 마음은 땅으로 배 부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목적입니다. 땅으로 배부르고자 하는 독사의 자식 됨을 죽이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세례는 가까이 온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세례입니다.

이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절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는 천국에 대해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임금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늘의 나라는 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천국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는 물세례와 별개가 아닙니다. 물세례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세례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물세례는 독사의 자식 됨을 죽이는 회개입니다.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땅의 것을 먹고 싶어서 땅을 생각하는 상태가 죽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은 구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향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 된 신분이 죽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 하늘을 향할 준비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하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쓰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즉각적인 만족이 생깁니다. 좋은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독사의 자식 된 신분은 물세례를 통해 죽었습니다. 이때 소원하게 되는 하늘은 육체를 통해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하늘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을 체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체감합니다. 더운 여름에 계곡에 발을 담그면 온 몸에 시원함이 전해져오듯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 천국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공간적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멀리 있다거나 가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이유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성령세례를 받으면 얼마든지 하늘나라를 체감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삼고 하늘나라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체감 할 수 없습니다. 체감 할 수 없는 하늘나라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육체의 감각으로 포착이 되지 않을 뿐 사실로써 존재합니다. 이 다른 차원의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령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다르게 천국을 체감하고 계셨기에 풍랑만난 배 위에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 또한 천국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헤롯에 의해 참수를 기다리는 중에도 천사가 옆구리를 차도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또한 천국을 체감하고 있

었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기쁘게 찬송을 할 수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연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서 드러난 절대 평강의 모습은 천국을 체감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실감나게 체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체감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와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평강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초대교회에서는 유무상통이 일어났고 모든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사의 자식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차라리 이를 깨물고 죽는 편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할만한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저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세례를 통해 천국을 체감하게 되면 원수사랑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치는 자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신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례를 통해 하늘을 땅보다 우선적으로 체감하게 된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성령세례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성령세례는 십자가 생활화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열심히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발동하여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에 성령은 약속된 분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지만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도구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정해놓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세례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구할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 생활화를 해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세례는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힘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불세례는 본문 10절에서 나타나는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심판의 불은 쭉정이들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세례에 대해 생각할 때에 모세의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홀로 바로 앞에 서서 200~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대항해서 저항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초강대국 바로의 대결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애굽이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애굽을 초토화 시킨 힘이 바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은 불꽃이 상징하는 하늘의 힘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이어 나타나는 불세례의 과정은 참 논리적입니다. 땅에 배를 붙이고 살던 삶이 죄악임을 깨닫고 물세례를 받아 하늘을 향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약속대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천국을 체감하게 해주시니 마음에 절대 평강이 찾아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충족되었으니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생겨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세례를 받아서 천국을 체감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불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생각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을 묘사하기를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세례를 받게 되자 하나님의 생각과 힘으로 나아가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은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세례의 힘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마음이 만족함으로 바랄 것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에 가족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불세례를 통해 하늘의 힘으로 남편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를 실감하는 동안 부모로써 자녀도 관계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학업 또한 불세례를 통해 하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삼중으로 반복되어지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물세례를 통해 땅에 대해 죽고 성령세례를 통해 천국을 체감하며 불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삼중세례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완성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얼마나 크고 넓고 깊게 실감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라는 말 외에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삼중세례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의 죽음을 고백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사의 자식 된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모습으로 이 모든 약속된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며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